

## 브리지스톤, 도쿄 2020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경기대회에 내진기술 지원

*수영, 다이빙, 아티스틱 스위밍, 배구, 휠체어 농구 경기장에  
브리지스톤 내진분리기술 사용*

세계 1 위 타이어 기업이자 올림픽 및 패럴림픽 파트너 중 유일하게 도쿄에 본사를 둔 브리지스톤이 도쿄 2020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경기대회가 진행될 신설 경기장 두 곳에 자사의 최첨단 내진분리 베어링을 공급한다.

90 년 역사의 글로벌 선두기업 브리지스톤은 도쿄 2020 대회기간 중 수영, 다이빙, 아티스틱 스위밍(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경기가 열릴 도쿄 아쿠아틱 센터(Tokyo Aquatic Centre)와 배구, 휠체어 농구 경기가 열릴 아리아케 아레나(Ariake Arena)에 자사의 첨단 내진 기술이 사용된다고 밝혔다.

내진분리 베어링이란 건축물의 하중을 떠받치면서 동시에 건축물을 지반에서 분리시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지진 충격이 건축물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줄이고, 건축물이 손상될 확률을 낮춰주는 구조물이다. 내진분리 베어링은 보통 직경 600mm~1800mm 크기다. 2019 년 완공 예정인 도쿄 아쿠아틱 센터와 아리아케 아레나에는 건축물의 기초 부분이 아닌 지붕을 이루는 구조물 밑에 베어링을 설치했다.\*1 스포츠 경기장처럼 넓게 개방된 홀 혹은 돔형 시설에는 지붕 구조물 밑에 내진분리 베어링을 주로 설치한다.

“브리지스톤은 내진분리기술분야에서 지난 수십년간 업계를 선도해왔다. 도쿄 2020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경기대회를 찾는 선수, 관람객을 비롯한 전세계의 손님들이 이동하고, 생활하고, 일하고, 즐길 수 있도록 브리지스톤은 혁신적인 제품과 기술솔루션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도쿄 2020 대회의 인기종목들이 치러지는 동안, 그리고 올림픽 및 패럴림픽대회 이후로도 오랫동안 두 경기장을 찾을 모든 사람들의 안전과 즐거운 경기관람에 브리지스톤의 내진분리 베어링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쿠사노 토모히로 브리지스톤 제품 및 솔루션 담당 부사장은 말했다.

브리지스톤은 내진분리기술의 개발 및 생산을 1984 년부터 해왔다. 현재 브리지스톤의 내진분리 베어링은 일본 및 전세계에서 각종 건축 시설물들에 사용되고 있다. 도쿄역, 로스앤젤레스 시청사와 같은 저명한 건축물을 비롯해 전세계 곳곳의 재난대피시설, 정부청사, 병원, 상업시설, 주거용 아파트 단지에 브리지스톤의 내진분리 베어링이 들어가 있다.

도쿄 2020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대회 이후에도 각종 국내 및 국제대회는 물론 일반인들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문화센터로서 기능하게 될 도쿄 아쿠아틱 센터와 아리아케 아레나. 브리지스톤의 내진분리 베어링은 도쿄 2020 대회 이후에도 두 경기장의 안전에 기여하게 된다. 도쿄 2020 대회를 위해 브리지스톤이 지원하는 기술 및 모빌리티 솔루션은 추후 더 공개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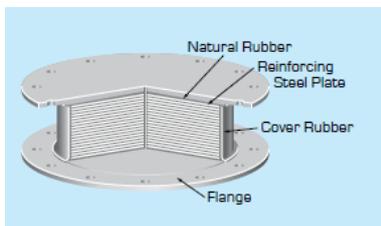
- 시설명: 도쿄 아쿠아틱 센터
- 타입: 천연고무 베어링 (8 개)

도쿄 아쿠아틱 센터의 시뮬레이션 이미지.\*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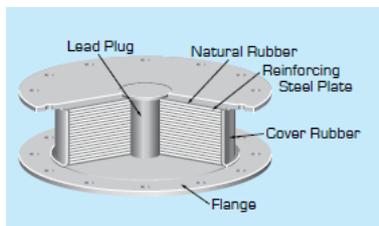


- 시설명: 아리아케 아레나
- 타입: 천연고무 베어링 (12 개)  
 납 고무 베어링 (4 개)  
 탄성 슬라이딩 베어링 (28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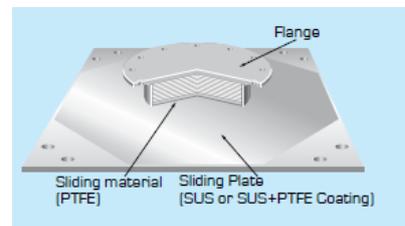
아리아케 아레나의 시뮬레이션 이미지.\*2



천연고무 베어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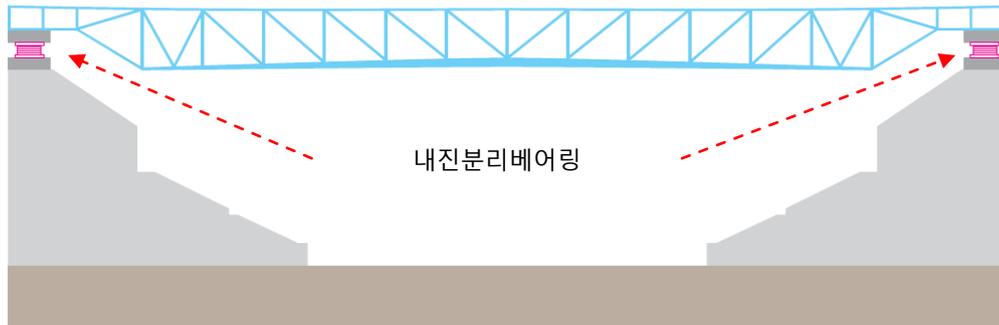


납 고무 베어링



탄성 슬라이딩 베어링

- \*1. 스포츠용 돔형 시설 혹은 홀처럼 크고 개방된 공간에서 내진분리 베어링을 지붕과 연결 구조물 사이에 설치하는 방식을 의미



- \*2. 해당 이미지들은 도쿄 2020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경기대회 준비국(Bureau of Olympic and Paralympic Games Tokyo 2020 Preparation)의 허가를 받고 사용되었다. 허락없는 재가공 및 재사용은 금지되어 있다. 도쿄 2020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경기대회 준비국 웹사이트는 하기와 같다.

<https://www.2020games.metro.tokyo.jp/eng/>

###